

황금알 산업 의료관광객 유치 광주·전남 특화전략 시급하다

한국은행 진단 '현황과 과제'

인프라·환경 전국 4위 불구 전담조직 없고 예산 지원 미미

외국인 환자 유치 3.1% 그쳐

광주·전남이 의료관광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 시스템과 행정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의료 기관이 부족하고, 행정 지원도 없어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의료관광 현황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 의료기관 수는 조사 시점인 지난 7월말 현재 89곳(광주 65곳·전남 24곳)으로 전국 2882곳의 3.1% 수준이다.

■ 2015 비수도권 주요 지자체 의료관광 전담 조직 및 예산 (단위:명, 백만원)

구분	광주	전남	부산	대구	대전
전담조직	없음	없음	의료관광팀, 의료협력팀	의료관광과	보건정책과 내담담(계)
담당직원수	1	1	8	13	3
예산	372	0	1,727	4,759	1,220

(예산은 국비포함, 자료: 각 지자체 홈페이지)

특히 실제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이 지역 의료 기관은 광주 10곳·전남 14곳에 불과했다. 1000명 이상 환자를 유치한 병원도 광주 1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5곳에 달했으나 광주·전남지역은 1곳도 없었다.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 관련 산업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또 의료관광 지원 조례도 없어 지자체의 정책지원도 미흡하다. 전국 7개 광역지자체와 13개 기초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지만 광주·전남 지자체 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 반면, 대구시는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의료관광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는 의료산업과 내에 의료관광팀 및 의료협력팀에서 8명의 직원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전담 팀을 꾸려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지자체, 의료, 관광, 호텔, 학계 등이 참여하는 '부산의료관광진흥협의회'를 구성해 의료관광 전반에 대해 결정·자문을 하는 등 컨트론타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 부산시는 오는 2020년 외국

인 환자 2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난 2010년 150여개 의료기관이 밀집돼 있는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 '서면메디컬스트리트'를 구축했다. 해당 지역은 해운대를 비롯해 유명 관광지인 해운대, 칸션, 소평, 기차역 등이 인접해 있다.

대구시도 중국 의료관광객을 겨냥해 수성의료지구 의료관광단지 조성하고 있으며 항노화, 성형, 모발이식, 피부, 안과, 치과 등 특화된 전문 클리닉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광주·전남은 전담조직도 없고 예산지원도 미미한 실정이다.

한국은행은 의료관광 중시지와 유망기관들이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행정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의료관광 지구 조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광주시 서구 광천동·농성동, 동구 학동, 목포 백년로 등 의료기관과 관광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을 메디컬스트리트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강호석 과장은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지역이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특화된 의료관광전략을 마련한다면 지역의 성장동력산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2.77 (+4.37)
- ▲ 금리 (국고채 3년) 1.68% (+0.01)
- ▲ 코스닥 686.18 (+4.05)
- ▼ 환율 (USD) 1132.00원 (-1.10)

은행 대출 신청서류 절반 줄인다

금감원, 내년 4월부터...자필서명도 최소화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대출서류에 기재된 형식적인 안내 서명을 없애고 꼭 필요한 서류에만 서명하도록 하는 등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도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채권 20대 금융개혁 계획' 과제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각종 금융거래 때 불필요한 서명이나 서류를 대폭 줄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취지다. 방안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 제출하는 20개 내외의 서류 가운데 9개 서류가 폐지 혹은 통합된다. 임대차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위임장, 여신거래종류 분류표, 주택담보대출 핵심 설명서 등 8개는

폐지되고,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으로 흡수된다. 그러나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꼭 필요한 서류는 유지된다.

자필서명도 최소화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고객과의 분쟁 예방이나 사후 면책 등을 위해 다수의 서명을 요구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거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유의사항과 관련해 확인하는 차원의 서명은 폐지 또는 일괄 서명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여신분야에서는 대출정보 통지 서비스 신청·자동이체 신청 등 4개 부문이, 수신분야에서는 금융거래목적 확인·대포통장 제재 확인 등 5개 부문이 폐지 또는 일괄 서명으로 대체된다.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CP 거래 무혐의

(기업어음)

공정위 "구조조정 과정서 발생한 불가피한 지원"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유동성 위기 당시 계열사끼리 기업어음(CP)을 거래해 부도를 막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결정은 경제개혁연대와 금호석유화학이 각각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혐의로 고발·고소한 사건과 금호석유화학이 박 회장과 기육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4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2009년 12월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워크아웃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금호피앤비 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1336억원어치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서로 등을 돌린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 매입을 결정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등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부도 및 법정관리를 피하려고 계열사들이 CP를 매입한 것이고, 박삼구 회장은 2009년 7월 퇴진해 당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해왔다.

당시 CP 거래를 두고서도 금호석유화학은 새로 매입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한 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CP 만기를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공정위는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으려고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고, 실질적인 기업 구조조정 과정 중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조사로 당시 CP 발행 및 매입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구조조정 과정 중의 일이라고 넓게 해석한 부분은 유감"이라며 "CP 돌려막기에 대한 배임혐의로 검찰수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사건의 성격이 다른 만큼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11일까지 中企제품 홍보전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은 5일부터 11일까지 여성 중소기업의 제품인지도 향상과 판로개척을 위해 광주신세계 1층 컬처스퀘어에서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제품 홍보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유신열), (사)광주·전남여성벤처기업협회(회장 최선희)가 공동 주최하며 여성벤처기업협회 회원사 23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기업은 이번 박람회 통해 제품 판매절차 체험과 마케팅 노하우를 배울 수 있으며, 특히 공동 주최기관인 ㈜광주신세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참여기업 중 고객 호응도가 높은 기업에 대하여는 백화점 입점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전시 품목으로는 도마와 쟁반으로 사용 가능한 안전강화유리 소재로 제작된 ㈜성일노텍의 테이블 매트, 세련되고 장인정신이 느껴지는 아트팩토리온의 주얼리와 금속공예품 등 200여개 제품이다. 김영환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은 "백화점에게는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확대 통로로 작용하여 내수진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수능시험장 보온병 챙기세요"

4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생활가전 매장에 대학수학능력시험(12일)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든든한 점심을 챙겨줄 보온도시락과 보온병·텀블러 등이 전시됐다. <롯데백화점 제공>

현대차 '제네시스' 세계 명차와 대결 선언

현대자동차가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로 통일하면서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외국 명차와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현대차는 4일 전세계 고급차 시장을 겨냥한 '제네시스' 브랜드 런칭을 했다.

이날 런칭에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아들인 정인선 부회장이 직접 나와 질의응답까지 받으며 무게감을 실었다. 위기에 처한 기아차를 반석에 올렸던 정 부회장이 이제는 현대차를 고급차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다. /연합뉴스

1967년 창립 이래 48년간 '현대'라는 단일 브랜드로 대중차 시장을 장악해 온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통해 고급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성공을 위해 2020년까지 총 6층에 달하는 고급차 라인업을 출시할 예정이다. 에쿠스를 제네시스에 맞게 탈바꿈한 초대형 럭셔리 세단은 내년 출시된다. /연합뉴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제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 (大山프리모) 검색

대산프리모가발